

“벚꽃과 함께 피어오른 209 학군단” 백석대 육군 학군단 65기, 66기 벚꽃사진 촬영



▲ 65기 단체 사진



▲ 부총장님과 단체 사진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2026년 4월 7일 교내에 활짝 핀 벚꽃들을 보며 단장님, 교수님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네스다 공원에서 65기, 66기 후보생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부총장님께서도 육군 학군단 벚꽃 사진을 촬영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방문해주셔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66기 후보생들은 이제 막 피어난 벚꽃처럼 이제 학군단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좋은 후보생 생활 후에 장교로 임관하는 그 날까지 항상 좋은 일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5기 후보생들은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학군단 생활을 잘 유지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나가 장차 소위 계급장을 달았을 때 큰 벚꽃나무처럼 성장해 멋있는 장교로 임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경영전공 23학번 65기 이승권 후보생 소감

많은 후보생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 깊은 시간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록하다, 앞으로의 시간을 다짐하다."
백석대 육군 학군단 65기 졸업앨범 촬영



▲ 65기 단체 졸업 사진



▲ 65기 2소대 졸업사진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5기 후보생들이 2026년 4월 17일 단복을 착용하고 졸업앨범 촬영을 진행하였다. 개인 촬영과 단체 촬영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을 사진 속에 담아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65기 후보생들에게는 아직 임관을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번 졸업사진이 지나온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훈련과 활동에 더욱 임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65기 후보생들이 남은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자랑스러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경찰행정학전공 23학번 65기 이종훈 후보생 소감

남는 건 사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2년이라는 시간이 추억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 같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또한 학군단 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지만 임관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 걱정도 설렘도 느껴졌다.

"임관의 그날을 향해, 땀으로 증명하다."
백석대 육군 학군단 65기 임관종합평가 대비 체력단련 실시



▲65기 임관종합평가 체력준비 사진



▲65기 임관종합평가 제식 준비 사진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5기 후보생들이 2026년 4월 중 이른 아침 교내 운동장에서 5월 15일 임관종합평가를 대비한 체력단련을 실시하였다. 후보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평가를 향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다.

임관종합평가는 후보생들이 장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최종적으로 검증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체력단련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평가를 앞두고 각자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후보생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의 의지를 다잡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앞으로도 후보생들이 체력과 정신력을 균형 있게 갖춘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스포츠건강관리전공 23학번 65기 강동훈 후보생 소감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라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 지 몰라서 많이 떨리고 준비하는 현재 계속 불안한 상태지만 단장님, 교수님과 훈육관님께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불안함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뀌는 중이다.

“건전하고 보람찬 학군단 문화 조성” 학군단장-여후보생 소통 간담회



▲소통 간담회 식사시간



▲단장님과의 인생네컷 사진

백석대 육군 학군단이 2026년 4월 16일, 학군단장 주관으로 여후보생 소통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군단 내 여후보생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람찬 학군단 생활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군단장과 여후보생들이 참석하여 학군단 생활 중 느낀 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훈련 및 교내 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과 동기-선후배 간의 결속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간담회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식사가 진행되었다. 단장님과 후보생들은 격식 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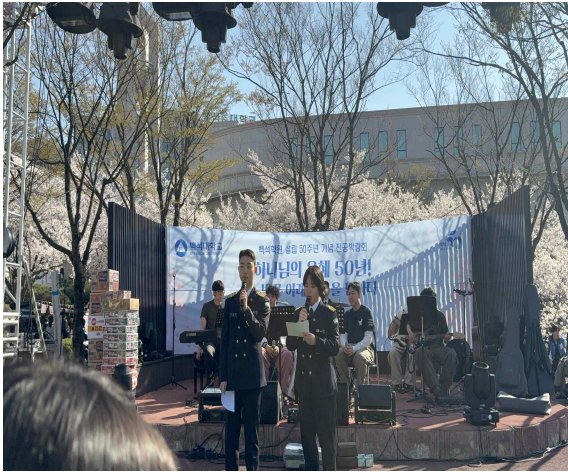
▼스포츠경영전공 23학번 65기 이다인 후보생 소감

“이번 여후보생 간담회를 통해 평소 학군단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들이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훈련 환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간담회 이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저희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단장님의 격려 덕분에 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후보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한층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대화의 자리를 넘어, 우리가 안전하고 보람찬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군단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다가오는 훈련과 학업 모두에 성실히 임하여 정예 장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캠퍼스에 울려 퍼진 선율”

백석대 육군 학군단, 벚꽃 축제서 ‘로맨틱 버스킹’ 홍보 펼쳐



▲ 이소흔, 이정환 후보생의 진행 장면



▲ 버스킹 마무리 사진

백석대 육군 학군단이 2026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내 캠퍼스에서 열린 벚꽃 축제를 맞아 친근하고 활기찬 육군 ROTC(학군단)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드림전공 65기 황지훈 사관후보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버스킹’ 공연이 약 한 시간 동안 펼쳐졌다. 이번 버스킹은 딱딱하고 엄숙한 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65기 이소흔, 이정환 후보생의 재치 있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작되어 축제를 즐기던 수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감미로운 음악과 화려한 드럼 연주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65기 배성준, 문미주, 이다인 후보생이 무대에 깜짝 출연해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들은 다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며 노래를 불러 축제의 낭만을 더하는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번 벚꽃 축제 홍보 활동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육군 ROTC의 매력과 젊은 패기를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학군단은 앞으로도 캠퍼스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실용음악전공 23학번 65기 황지훈 후보생 소감

이번 학군단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협동의 중요성과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 친구들과 학군단 후보생들이 함께 도와주고 참여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군단 활동을 통해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버스킹을 이끌어가며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를 믿고 맡겨주신 교수님과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